



## 축산물 브랜드전 성황리에 개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는 2006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가 열렸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간 열리는 축산물브랜드 전시회는 3일간에 걸쳐 전국 120여 개의 업체가 참가했고,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와 경품추첨 등으로 다채롭게 준비되었다.

### 2006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개막식

지난 7일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는 '맛있는 유혹 행복한 체험'이라는 주제로 농림부 주최, 농협중앙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의 주관 및 대한양계협회·전국한우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대한양돈협회·한국계육협회·한국양육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양봉협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축산물등급판정소의 후원으로 2006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막이 올랐다.

행사장은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한우·돼지·육우·닭·계란·사슴·오리·치즈를 대표하는 120여개의 브랜드 업체가 300여개의 부스로 참가하여 3만여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다. 양계관련 업체는 10여개가 참여하였지만 이중 계란관련업체의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다.



▲ 2006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막을 축하하며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은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 '맛있는 유혹 행복한 체험'

전시 첫째날은 개막식과 함께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리고,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해 K-1에서 활동 중인 최홍만 선수와 송석우 농협 축산대표, 박홍수 농림부장관, 황민영 농특위원장, 최정섭 농경연원장 및 각 단체장들이 조리한 '2006



▲ K-1 최홍만 선수와 각계 인사들 '2006인분 팔도팔미 한우불고기 조리'에 참여



▲ 축산물 요리솜씨대회

인분 팔도팔미 한우불고기' 배식이 있었다. 또한 '브랜드 축산물 요리솜씨대회'를 통해 축산물 요리 개발과 시식회를 가져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전시 둘째날은 첫째날에 이어 '말도를 주물러!'라는 주제로 돼지 주물럭 배식이 이루어졌고, 식육업체의 위생상태와 상품화 능력을 평가하는 '식육기술 경연대회'로 참여한 브랜드의 평가전이 치러졌다.

마지막날, 경품추첨과 함께 각 부스에서는 대대적인 할인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방문객의



▲ 닭과 계란의 소비촉진을 위해 이번 행사에 참가한 대한양계협회 부스



▲ (주)마니커는 행사 마지막날 가공육 1인당 1개씩 증정하는 행사로 부스 앞 사람들의 줄을 이었다.



▲ 마늘과 한약재를 급여한 100% 무항생제 닭 '청풍명계(장 이준동)'



▲ 전시되어 있는 생육·가공육·조리육



▲ 전시되어 있는 삼계탕



▲ 계란 성분 분석 기계인 'Charm II 7600'



▲ 무항생제 사료

발길을 잡았다.

## 10여개의 양계관련업체 참여

전시된 양계관련 브랜드는 냉장·냉동제품의 대표하는 (주)하림(대표자 김홍국), 마니커(대표자 한형석), 국내 최초 계란 생산 이력제 도입을 실시하고 자외선 살균기와 레이저 투광기를 이용해 계란 속 이물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주)조인(대표이사 한재권), 무항생제 청풍명계를 생산하는 충북바이오친환경축산물사업단(단장 이준동), 인삼잎을 활용하여 보조사료를 육계에 급여하는 흥성서부육계영농조합법인(대표자 황선성), 매실발효사료를 급여하는 여수매실닭영농조합(대표자 양일영), 오골계·토종닭을 생산하는 연산식품(주)(대표자 심달현) 등이 참가하여 설명회와 시식회를 통해 참관객의 시선을 끌었고, 냉장닭고기·가공육·신선한 계란 등 할인판매를 통해 양계 브랜드 인식에 자리 잡는 역할을 하였다.

그 외 관련업체에서는 계란의 유해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 'Charm II 7600' 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국내 축산물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길...

브랜드 전시회는 2003년부터 지난 4년간 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전단계에 걸쳐 브랜드 관리가 우수한 경영체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충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활동으로 많은 참관객의 참여로 국내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더욱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길 바란다. **양계**